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기 정치경제학을 주체적립장에서 정립체계화하도록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

박 용 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기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정치경제학을 주체적립장에서 정립체계화하도록 이끌어주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정치경제학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그것을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경험에 기초하여 주체성있게 서술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권 485페이지)

196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정치경제학과목의 체계와 내용은 우리 당의 사상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게 맑스-레닌주의유물사관이 밝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호상관계에 관한 리론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다른 나라의 교재내용을 그대로 해설하고있었다. 실지 정치경제학교과서에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문제를 먼저 분석한 다음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문제를 언급하고 또 공업화를 한 다음에 농업협동화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내용들이 우리 당의 사상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게 전개되어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제학의 기본학문인 정치경제학과목강의에서 선행고전가들의 리론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것을 목격하시면서 정치경제학의 교육내용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시였으며 정력적인 사색과 사상리론활동으로 정치경제학을 주체적립장에서 정립체계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정치경제학을 주체적립장에서 정립체계화하기 위한 주체적방법론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과학연구의 방법론을 바로세우는것은 학문연구의 출발점이며 과학적인 학문건설의 필수적담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제학부의 교원, 학생들과 자주 자리를 같이하시고 사대와 교조로 굳어진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정치경제학연구에서 사람을 출발점으로 보며 우리 나라 실정과 조선혁명을 중심에 놓고 연구하는 주체의 연구방법론을 철저히 견지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경제사상에 기초하여 사람을 정치경제학연구의 출발점으로 보는 주체적방법론을 확립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49(1960)년 9월 경제학부 교원들과 하신 담화에서 정치경제학강의에서 나타나고있는 사대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현상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생산력구성요소에 노동대상을 포함시키고있는 문제를 바로잡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생산력은 자연을 정복하는 사람의 힘인것만큼 노동대상을 생산력구성요소에 포함시켜서는 안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노동대상이 풍부하고 질이 좋으면 생산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한것만은 사실이지만 노동대상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힘

이 가해지는 대상이지 그자체가 생산력으로 될수는 없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생산의 세 요소를 사람의 노동, 노동대상, 노동수단으로 보면서 생산의 결정적요인인 사람과 관련한 문제를 바로 해설하지 못하고있는 편향을 포착하시고 바로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49(1960)년 12월 학생들과 하신 담화에서 물질적부부의 생산은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노동수단을 가지고 노동대상에 작용하여 자연을 개조하는 과정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동은 노동력을 소비하는 과정, 다시말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라는것, 노동은 생산과정에서 사람이 가지고있는 창조력을 발휘하는 과정이지 그것이 곧 생산의 한개 요소로되는 물질적실체는 아니라는것, 생산의 세 요소를 노동력을 가진 사람과 노동수단, 노동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이날에 하신 말씀은 생산의 세 요소를 가장 과학적으로, 독창적으로 정식화한 고전적명제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생산에서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하게 되는 근거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면서 생산에서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람이 사상의식을 가지고있기때문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후 강선의 노동계급속에서 천리마운동의 첫 봉화가 타오르게 된것은 국가가 거기에 기계설비와 원자재를 더 많이 대주었거나 강선제강소에 특별히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이 발동된 결과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생산을 발전시키는데서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 의

하여 검증된 진리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듭되는 가르치심에 의하여 경제학부의 교원, 학생들은 선행리론에 대한 승상과 교조적태도에서 벗어나 정치경제학연구에서 사람을 출발점으로 보는 주체의 연구방법론을 확립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교원, 학자들이 정치경제학연구에서 사람을 출발점으로 보는 주체의 연구방법론과 함께 우리 당의 사상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기초하여 연구하는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치경제학강의에서 우리 나라의 력사와 현실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고 선행리론의 틀에 억지로 맞추어 해설하는 실태를 깊이 헤아려보시고 주체49(1960)년 12월 경제학부 교원들과 하신 담화에서 정치경제학의 리론문제들을 우리 나라의 력사적사실과 우리의 현실에 기초하여 연구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치경제학에서 취급하는 도시와 농촌의 대립을 없애기 위한 방도문제도 주체적립장에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쏘련사람들이 만든 정치경제학교과서는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전개하다보니 토지소유문제해결에서 레닌의 토지국유화강령을 기본으로 취급하였다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출발하지 않고 선행한 고전의 명제에 기계적으로 매달려 정치경제학리론을 전개하여서는 안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정치경제학연구에서 주체적립장에 철저히 서야 하며 주체가 서지 않고 교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경제학강의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강의로 되어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에 하신 담화의 기본사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교원

들은 주체적립장에서 정치경제학을 정립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와 토론을 심화시켜 나갔다.

주체50(1961)년 9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제학부의 한 교원과 담화를 하시면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과도기문제를 해설할 때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필연성을 먼저 논의한 다음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문제를 해설하고있는것이 잘못된 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는데서도 우리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도기문제를 반제반봉건적인 민주개혁보다 먼저 취급한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교조주의적태도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듭되는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경제학부의 교원, 학자들은 사람을 경제학연구의 출발점으로 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경제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을 중심에 놓고 정치경제학의 리론문제를 전개하는 주체적방법론을 확립하게 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정치경제학을 정립 체계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군중로선에 의거한 우리 식의 새로운 정치경제학교과서를 편찬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0(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당시)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면서 군중로선에 의거한 새로운 경제학교과서를 만들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부르조아경제학으로부터 맑스-레닌주의 정치경제학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연구의 력사는 수백년이 지났지만 군중로선에 의거

한 경제학이라는 말은 그 어느 갈피에도 없었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은 교원, 학자들은 군중로선에 의거한 경제학이란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 하는 정확한 표상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제학부의 교원, 학자들이 군중로선에 기초한 정치경제학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고 교과서집필을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1(1962)년 12월 경제학부 교원들과 담화를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려면 군중로선에 의거한 경제리론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것부터 옳게 인식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중로선에 의거한 경제리론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잘 알려면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론대로 교과서를 쓰면 군중로선에 의거한 정치경제학교과서를 잘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군중로선에 의거한 정치경제학교과서를 단번에 완성할수는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완성을 위한 순차와 단계, 구체적방법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은 교원, 학자들은 군중로선에 기초한 주체의 정치경제학교과서집필을 위한 연구와 토론을 심화시켜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주체의 정치경제학교과서를 훌륭히 집필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체51(1962)년 11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안전기공장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면서 하신 교시를 록음한 테프를 가져다주시면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학습하고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

업에 구현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주체52(1963)년 11월에는 《공업경영학》교재 초고를 보시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속기록까지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식의 정치경제학을 훌륭히 완성하기 위하여 경제학부의 교원, 학생들이 정치경제학의 자본주의편과 사회주의편에서 나오는 원리적인 문제들을 바로 해석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당시 정치경제학 자본주의편은 선행고전가들의 견해나 소련의 정치경제학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있는 형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1(1962)년 5월 경제학부 학생들에게 정치경제학 자본주의편연구에서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중요한 문제들인 상품화폐관계와 자본주의경제관계사이의 호상관계문제, 제국주의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시 교과서에도 서술되지 않았고 또 학계에서도 정확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있던 상품화폐관계와 자본주의경제관계사이의 호상관계문제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자본주의이전사회에서는 자연경제가 지배적이였기때문에 비록 상품화폐관계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경제제도의 형성과 존립의 전제로 되지는 않았다고, 인류사회에서 상품화폐관계와 가장 밀접히 련관되고 그것의 존재를 직접적인 전제로 하는 사회경제관계는 자본주의경제관계라고 교시하시였다.

상품화폐관계와 자본주의적경제관계사이의 련관은 자본주의적경제관계의 발생이 상품화폐관계를 전제로 하고있는데서 나타난다. 소상품생산에서는 가치법칙이 작용하기때문에 계급분화가 일어나 자본가와 고용로동자가 생겨나고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하게 된다는것은 경제학의 초보

적인 원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국주의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정치경제학의 자본주의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도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정치경제학 사회주의편의 내용을 주체적립장에서 옳게 꾸리는것은 우리의 정치경제학을 과학적로대우에 올려세우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리론적으로 옳게 풀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그러나 당시 정치경제학 사회주의편의 내용을 보면 자본주의편과 마찬가지로 교조주의적으로 서술되어있었다. 이러한 편향은 도시와 농촌의 대립을 없애기 위한 방도문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과도기 문제사이에서 제기되는 순차성문제, 농업협동화문제, 사회주의공업화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문제 등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49(1960)년 12월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강좌 강좌장과 하신 담화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과 말씀들에서 정치경제학의 자본주의편과 함께 사회주의편의 내용을 주체적으로 편성하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치경제학교재와 강의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과 그를 없애기 위한 방도를 착취계급들의 토지를 국유화하는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주로 레닌의 토지국유화리론에 기초하여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그와 다르게 하였다는 식으로 해설하고있는데 대하여 교시하시고 레닌의 토지국유화강령은 당시 로씨야농촌의 실태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작성된것이므로 이것을 토지문제해결의 가장 보편적인것으로 생각하는것은 결국 당시 로씨야농민들의 요구를 농촌일반의 공통적인 지향으로 보는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세계의 많은 나

라들이 지난날 우리 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것만큼 우리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자기의 소유로 하였으면 하는 농민들의 지향에 맞게 토지개혁을 통하여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를 세웠다가 사회주의혁명단계에 와서 그것을 다시 협동적소유로 전환시키고 그후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은 우리 혁명과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시와 농촌의 대립을 없애기 위한 방도를 명철하게 밝혀준 귀중한 말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밖에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과도기사이의 호상관계문제, 우리 나라의 농업협동화운동의 특징과 그것이 가지는 리론실천적의의에 관한 문제, 우리 당의 공업화방침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독창성과 진리성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의 호상관계문제,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본질과 기본특징문제 등 정치경제학의 사회주의편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옳바로 정립체계화하는데서 나서는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

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관심과 정력적인 지도밑에 경제학부의 교원, 학자들은 고심어린 연구와 노력끝에 주체53(1964)년 초 새로운 정치경제학교과서초고를 집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로운 정치경제학교과서초고가 집필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고 주체53(1964)년 3월 경제학부 학부장을 만나시여 우리 식의 정치경제학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평가해주시면서 보다 완성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기 빛나는 예지와 세심하고도 구체적인 지도로 경제학부의 교원, 학생들을 이끌어주심으로써 정치경제학이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우리 혁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주체가 선 학문으로 새롭게 정립체계화되게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것이다.